

도솔가에 나타난 미륵신앙

최정선

연세대학교 국학연구원

I. 들어가는 말

향가의 불교문학적 성격에 대한 연구는 향가의 본질을 규명하는 일이다. 이는 『삼국유사』가 일연 스님의 시선에 의해 채록된 불교 역사 설화집이며 향가 관련 설화의 대부분이 불교적 영험과 관련되기 때문이다.¹⁾ 향가는 불교의 전파, 포교와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다. 향가는 불교의 사회, 정치적 역할의 한 축을 담당하는 노래이다. 때문에 향가가 불교 교리를 내포하고 표현하는 방식, 향가의 불교적 활용, 향가 관련 설화와의 연계성 등이 종합적으로 해명되어야 한다. 구체적으로 불교 교리의 확산과 대중적 이해, 정치 사회 이데올로기

1) 향가 관련설화 대부분은 사찰 연기담, 혹은 승(僧)의 영험한神通력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는 향가의 문학적 해석 역시 불교적 맥락을 떠나서는 온전할 수 없음을 의미한다.

로서 대중에게 신앙화 생활화하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향가에 대한 접근이 필요하다.

향가를 불교의 틀 안에서 설명하는 것은 향가의 현실적 기능과 사회적 역할을 구체적으로 밝히기 위해서이다. 향가는 단순한 유행가가 아니라 당대 사회를 계몽 선도하고 위무하는 특수한 기능요였기 때문이다. 본고는 향가 도술가의 불교적 성격과 내용, 기능을 불교적으로 설명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도술가를 불교 문학으로 해석한다 함은 도술가의 정치 사회적 기능과 문학적 의미를 불교적으로 해명하는 것이다.²⁾ 도술가는 미륵신앙으로 국가적 문제를 해결한 노래이다. 일괴(日怪)를 물리치는 주술가라기보다는 미륵불에게 문제해결을 청원하는 불교 향가이다. 그러므로 당대 미륵신앙의 의미와 역할이 도술가에 투영된 방식과 도술가가 미륵신앙을 구체화하는 방식을 면밀하게 검토하는 입체적 작업이 필요하다.

지금까지 도술가의 연구는 도술(兜率)의 의미와 관련한 노래 성격 규명, 유리왕 대 도술가와 경덕왕 대 도술가의 비교, 하늘의 변이가 내포한 상징성을 해명, 배경설화와 관계된 문학적 해석에 이르기까지 폭 넓은 논의를 거듭해 왔다. 기존 논의는 도술(兜率)을 우리말의 차자(借字)로 파악하고 가악적(歌樂的) 의미를 추정하거나 도술가를 불교, 주술, 화랑도적인 성격으로 나누어 문학적 해석을 풀어낸

2) 도술가를 불교적 관점에서 해석한 것은 김동욱과 김운학이다. 김운학은 도술가를 미륵의 감응으로, 김동욱은 미륵하생신앙에 의한 미륵청불의 불교가요로 성격을 규정하였다(김동욱, 『韓國歌謠의 理解』, 서울: 을유문화사, 1960, 60쪽; 김운학, 『鄉歌에 나타난 佛敎思想』, 서울: 동국대학교 불교간행위원회, 1978, 107-114쪽). 그러나 미륵신앙으로 설화와 향가를 아울러 흡족하게 엮어 내지 못했다는 문제를 지적할 수 있다.

것으로 크게 분류될 수 있다. 최근에는 기존의 논의를 바탕으로 하되 참신한 시각으로 해석하려는 연구 성과들이 돋보인다. 가령, 도술가를 정치적 목적에 활용한 악장적 성격의 가창으로 성격을 밝히거나³⁾ 정치의 이념을 현실화한 노래로 보는 역사사회주의적 해석도 제시되었고⁴⁾ 당에서 일어난 안록산의 반란이 미륵의 하생으로 평정되기를 기원하면서 반란자에게 미륵으로 귀의하라는 원망을 표현하는 노래로 파악하기도 하였다.⁵⁾ 또한 『구당서』 천문지, 『신당서』, 『삼국사기』의 혜성(彗星) 관련 기록을 대조하여 헬리혜성 출현시점을 역추적하여 실증적으로 증명한 후 도술가는 전신라인이 의례 가운데 지속적으로 반복하여 부른 노래로 보기도 했다.⁶⁾ 이들 연구는 새로운 시각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연구결과와 차별화되지 않는 대동소이한 해석에 그쳤다. 이는 도술가와 관련 기록을 국가 위기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주술적, 제의적 맥락으로 해석하는 관점에서 벗어나지 못했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일반론은 “이일병현(二日並現)”의 이변을 산화공덕(散花功德) 의식과 노래로서 제압했다는 주력에서 말미암은 것이다. 이변의 소멸, 혼돈의 극복, 정상적 질서로의 환원을 주술적이라고 보는 것이다.⁷⁾ 그러나 향가의 주술성은 신화세계의 신이적

3) 이민홍, 「신라 악무에서 향가의 위상과 「도술가」의 악장적 성격」, 박도준 엮음, 『고전시가 역어 읽기』 (서울: 태학사, 2003), 87쪽.

4) 신재홍, 「향가에 나타난 정치의 이념과 현실」, 『古典文學研究』 26집 (고전문학연구회, 2004), 189-220쪽.

5) 岡山善一郎, 「兜率歌と歴史記述」, 『朝鮮學報』 176·177 (조선어문학회, 2000), 151쪽.

6) 서영교, 「경덕왕대 月明師 兜率歌 창작과 헬리 혜성」, 『우리文學研究』 19 (우리어문학회, 2005), 62-91쪽.

7) 김열규는 구지가와 동일한 노래 구조 즉 불러내고 명령하는 형식을 공유하고 있다는 점에서 주가(呪歌)로 보았다(『향가의 어문학적 연구』, 서울: 서강대학교 인문과학 연구

주술과 다르다. 비합리와 연계성 없는 상상을 신화적으로 수용할 수 있었던 시기가 아니었다. 고대 불교의 주술적 믿음은 합리적 종교성을 내포한다. 도술가를 단지 주술적 노래라고 단언할 수 없는 이유는 경덕왕 시기는 이미 국가 체계가 완비되고 국왕을 중심으로 한 정치가 확립된 고대의 근대에 해당되기 때문이다. 비록 주술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해도 설명하고 신념화하는 데는 종교적 합리성과 설득의 논리화 방식이 개입되어 있었다.⁸⁾ 도술가를 주술적 노래로만 읽어서는 안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도술가는 고대의 근대적사고로서의 불교적 신이에 대한 합리성을 논리적으로 설명하는 방식으로 이해해야 한다.

도술가는 나라의 문제를 불력으로 해결하려 한 공적(公的) 영역의 노래이다. 개인의 수양과 신심의 강조로 귀결되는 노래가 아니기에 여타의 향가와 구별된다. 국가적 재난을 불교의 힘을 빌어 해결한다는 것은 원시적 신화성을 극복한 고대의 근대를 의미한다. 문제 상황에 대한 합리적 이해와 통찰, 불력의 활용은 주술성과는 거리가 있다. 역사적 경험을 통해 문제의 본질을 파악한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도술가는 산화공덕에 사용된 꽃에게 “미륵좌주”(彌勒座主)를 모실 것을 당부하는 내용이다. 미륵신앙이 국가 차원의 문제 해결에 강하게 결부되었던 것이다. 때문에 향가 도술가와 관련 역사 기술은 미륵

소, 1972, 13쪽). 또 박노준과 김승찬은 불교적 제의에서 불린 주밀사상을 바탕으로 한 다라니적인 노래로 성격을 규정했다(박노준, 『新羅歌謠의 研究』, 서울: 열화당, 1982, 179쪽; 김승찬, 『향가문학론』, 서울: 새문사, 1986, 298-311쪽).

8) 부연하자면 ‘문제해결을 위해 노래를 했더니 상황 변화가 있었다’는 것이 원시 주술이라면 고대의 주술은 ‘문제의 원인을 분석하여 해결을 모색하였고 합리적 설명과 논리로 인해 문제상황이 종결되었다’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신앙을 통해 국가적 위기를 모면하려 했던 사실과 결부시켜 해석해야 한다.

도술가의 실상은 하늘에 해가 둘 나타났다는 역사사실의 상징성 해석과 문제 해결의 불교적 언술과 미륵신앙의 사회적 의미를 통해 좀 더 구체적으로 드러나게 될 것이다.

II. 二日並現의 상징과 미륵신앙

1. 미륵으로서의 국왕

향가 도술가는 『삼국유사』感通 편의 「月明師兜率歌」조에 수록되었다. 월명사의 신이한 행적과 인간다운 면모가 강조되는 가운데 향가 도술가, 제망매가가 나란히 실려 있고, 말미에는 향가를 설명하는 논평이 부기되어 있다. 배경설화는 다음과 같다.

경덕왕(742~765) 19년(760) 경자 4월 초하루, 해가 둘이 나타나서 열흘이 가도록 없어지지 아니 하였다. 천문관이 임금에게 아뢰어 말하기를 인연이 있는 스님을 청하여 산화공덕을 하면 풀릴 수 있다 하였다. 그래서 제단을 조원전(朝元殿)에 깨끗이 꾸며 놓고 임금이 청양루(靑陽樓)에 나가 앉아서 인연이 있는 스님이 지나가기를 기다렸다. 마침 월명사(月明師)가 언덕 남쪽 길로 가고 있었다. 임금이 그를 부르라 하여 제단을 열고 의식을 시작하게 하니, 월명사가 아뢰기를 저는 다만 화랑의 무리에 속하여 있기 때문에 오직 향가만 알 뿐이고 범패 노래는 알지 못합니다 했다. 임금이 말

하기를 이미 인연 있는 스님이 되었으니 향가를 쓰더라도 무방하다고 하였다.
월명사는 이 말을 듣고 도술가를 지어 불렀다. 노래 말은 이러하다.
오늘 이에 散花 불어 색슬븐 고자 너는 고든 므스미 命사 브리읍디 彌勒座
主 피서와

이 노래를 한시로 번역한 것이 있는데 그 뜻은 이러하다.

임금의 누마루에서 오늘 산화를 불러 하늘로 한 조각 꽃을 떼여 보내노니
은근한 양심의 시키는 대로 멀리 도술천의 부처님을 맞이하라.
지금 시속에서는 이 노래를 산화가라고 하는 것은 잘못이고 도술가라고
하여야 한다. 산화가라는 것은 따로 있는데 글이 길기 때문에 신지 못한다.
얼마 안가서 해의 궤변이 없어지매 임금이 가혹하게 여기여 좋은 차 한 봉
과 수정 염주 일백 여덟 개를 상금으로 내렸다. 난데없이 조출한 맵시를 한
동자 하나가 나타나서 무릎을 꿇고 차와 구슬을 받아 가지고 대궐 서쪽 적
은 문으로 나갔다. 월명사는 생각하기를 내전의 심부름꾼이니 하였고, 임
금은 월명사의 상재이거나 생각하였는데 서로 말을 맞추어 보니 그도 저
도 아니었다. 임금이 이상하게 생각하여 사람을 놓아 따라가 보게 하였더
니 동자는 왕궁 안에 있는 탑 속에 숨었다. 차와 구슬은 남쪽 벽에 그린 미
륜보살 화상 앞에 놓여 있었다. 월명사의 지극한 덕과 지극한 정성이 능히
부처의 조화를 빌어 나타냄이 이와 같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 사실을 세
상이 다 들어 알게 되니 임금이 더욱 공경하여 다시 비단 백 필을 주어 큰
정성을 표시하였다.⁹⁾(이하 략)

9) 景德王十九年庚子四月朔二日並現挾旬不滅日官奏請緣僧作散花功德則可讓於是潔壇於

하늘에 해가 둘 나타난 천문질서의 혼란은 지상질서의 교란과 문제 상황을 암시한다. 연구자들은 ‘이일병현’현상을 중앙 권력, 그 가운데 핵심인 왕에 대한 도전으로 해석하거나¹⁰⁾ 교종과 선종의 대립구도로 파악하거나¹¹⁾ 세계적으로 퍼져있는 태양을 활로 쏘아 하나를 없애는 설화(射陽說話) 보고 가뭄 해결을 위한 상징적 표현으로 설명하였다.¹²⁾ 혹은 혜성의 기록으로 보기도 하였다.¹³⁾ 하늘에 해가 동시에 둘이 나타나는 일은 천문학적으로 불가능하며¹⁴⁾ 가령 해무리 현상

朝元殿駕幸青陽樓望緣僧時月明師行于阡陌時之南路王使召之命開壇作啓明奏云臣僧但屬於國仙之徒只解鄉歌不聞聲梵王曰既卜緣僧雖用鄉歌可也明乃作兜率歌賦之其詞曰今日此矣散花唱良巴寶白乎隱花良汝隱直等隱心音矣命叱使以惡只彌勒座主陪立羅良解曰龍樓此日散花歌挑送青雲一片花殷重直心之所使遠邀兜率大僊家今俗謂此爲散花歌誤矣宜云兜率歌別有散花歌文多不載既而日怪即滅王嘉之賜品茶一甕水精念珠百八箇忽有一童子儀形鮮潔跪奉茶珠從殿西小門而出明謂是內宮之使王謂師之從者及玄微而俱非王甚異之使人追之童入內院塔中而隱茶珠在南壁畫慈氏像前知明之至德至誠能昭假于至聖也如此朝野莫不聞知王益敬之更贖絹一百疋以表鴻誠 ……

- 10) 많은 학자들은 하늘에 나타난 이변을 정치 상황과 결부하여 해석하여 왕당파와 반왕당파의 정치적 대립을 상징한다거나 (윤영옥, 『신라가요의 연구』, 서울: 형설출판사, 1982, 60쪽), 당대의 실권자 김현영(경덕왕)과 김엽상 두 김 씨의 다툼이라거나(이도흙, 『신라인의 마음으로 삼국유사를 읽는다』, 서울: 푸른역사, 2000, 234-243쪽) 하는 등, 왕권에 대한 도전세력의 등장을 상징하는 것으로 풀었다. 신재홍은 여기에 덧붙여 경덕왕 당대의 정치 사정을 면밀히 추적하고 당시의 천재지변과 불안정한 시대와 맞물린 이변으로 설명하였다(앞의 논문).
- 11) 김문태, 「유리왕 대 도술가와 경덕왕 대 도술가의 거리」, 『고전시가 읽어 읽기』 (서울: 태학사, 2003), 95-114쪽.
- 12) 현용준, 「도술가」, 『향가문학연구』 (서울: 일지사, 1993), 416쪽.
- 13) 서영교는 이일병현을 당시 천문기록과 천문관측 기술을 증거로 대형급 혜성의 출현으로 설명하였다. 그러나 『삼국유사』에는 혜성을 妖星, 彗星으로 기록하고 있지二郎로 표기하지 않았다. 혜성을 해로 기록해야만했던 상징성의 해석이 필요하다.
- 14) 일과 현상을 역사적 사실로 완벽하게 환원할 수 없는 것은 경덕왕 대(760년 4월) 해가 둘 나타났다는 역사 기록을 『삼국사기』에서 찾을 수 없기 때문이기도 하다. 물론 『삼국사기』 혜공왕조(9권, 신라본기 36, 혜공왕 4년 봄)에 혜성이 동북쪽에 나타났다는 기록이 있으나 『삼국유사』와 일치하지 않는다.

이라 해도 열흘 동안 지속되기 어렵다. 때문에 해가 둘 나타난 이변의 역사적 확인보다는 상징성과 문제 해결법의 의미를 재조합해야 한다. 설사 혜성이 나타나 해가 둘 떠 있는 것처럼 보였다고 해도 천체 이변을 해석하는 당대인의 시각, 은유의 핵심으로서의 진의(眞意)를 파악해야 한다. 역사적 사건의 채록과 은유는 있었던 사실의 의미화이다. 문학적 기록은 의미 있는 역사를 상징화한다. 때문에 역사의 복원과 의미의 확보는 문학적 해석과 병행되어야 한다.

해는 하늘의 중앙이며 우주의 질서를 주관하는 상징물이다. 하늘의 중앙에 위치한 태양은 절대 권력, 임금을 상징한다.¹⁵⁾ 당대 신화적 민속적 관습은 임금을 해와 동일시하게 한다. 보편 상징으로서 해가 임금이라면 도술가의 특수한 해는 미륵보살의 체현이다. 해는 미륵(彌勒)보살과 동류항이다. 본래 미륵은 ‘미트라’(Mitra)라는 신의 이름으로부터 유래되었다. 미트라는 인도·페르시아 등지에서 섬기던 고대 태양신이다. 게다가 미륵불은 인간세상과 인연을 다 한 후 도술천에 올라가 하늘나라에서 설법 교화하는 부처이다. 때문에 미륵신앙으로 천체 이변을 제어하는 도술가 조에 기술된 해(日)는 국왕인 동시에 미륵의 상징이다. 도술천에 있는 미륵과 왕을 동일시하여 해에 견주었다. 미륵은 본래 부처님의 제자였는데 인간세상의 인연이 다한 뒤에 도술천으로 올라가 하늘나라의 모든 무리에게 설법교화하고 있는 일생보처보살로서, 훌륭한 왕(轉輪聖王)이 세상을 다스릴

15) 일본의 大化 2년(646) 3월 中大兄皇太子의 奉答文에 “……하늘에는 두 개의 해가 없고, 나라에는 두 임금이 없기에 천하를 아울러 만민을 부릴 수 있는 것은 유일하게 천황 뿐이고……”라 기술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하늘의 해를 국왕에 견주어 생각한 것은 고대 동아시아 공통의 관념이었다.

때 내려와서 용화수 아래에서 성불하고 석가부처님이 제도 못한 인연 있는 중생을 세 차례의 설법을 통하여 모두 교화 제도한다는 것이다. 왕과 미륵을 동일 반열에 놓음으로 인해 국왕의 권위를 부처와 동일시하였다. 국왕이 곧 도솔천의 미륵보살이라는 암시는 국왕 도전 세력에 대한 경고이다. 강화된 절대 왕권 구축을 위한 포석이다. 또 잦은 자연재해로 인해 불안해 하는 백성들에게 심리적 안전판 역할을 한다. 하늘에는 국왕이자 미륵인 해가 지켜주고 있으니 실상은 안위와 태평을 걱정할 것이 없다는 반어적 설명이다.¹⁶⁾ 미륵불 사상은 완전하지 못한 것을 완전하게 하고 희망과 새 생명을 불어넣는 상징으로 불교인들에게 신앙되어 왔으므로¹⁷⁾ 이를 이용해 실체가 아닌 소망을, 가상을 진상으로 믿을 수 있도록 형상화한 것이다.

2. 미륵으로서의 왕자

도솔가의 배경이 되는 두 해의 출현을 해석하는 시각은 대개 일치한다. 왕을 상징하는 해와 왕의 세력에 도전하는 반대무리의 도전으로 두 해의 상징적 의미를 풀었다. 천체 이변을 왕권에 대한 도전과

16) 표면적으로는 변화하고 즐거운 듯하지만, 실상은 심각한 문제가 내재되어 있었다는 식의 중의적 서술방식은 「처용랑망해사」 「경덕왕 충담사 표훈대덕」 조의 설화 기술에도 드러난다. 외형적으로 실재하는 현실과 내재된 실재로서의 현실이 불일치하는 위기상황의 기술 방식이다. 이는 일연의 독특한 글쓰기 방식이며 동시에 불교적 세계관이다. 불법은 상징으로 위기를 예고하고 암시한다. 이때 돈독한 불심을 가진 사람, 깨달음을 얻은 자만이 정조의 기미를 포착할 수 있다고 파악하였다. 또한 불교는 위기 상황을 미리 경고함으로써 예비하게 하거나 문제를 종식시킬 방법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포용적 문제해결자 역할을 했다고 보았다.

17) 김영태, 『불교사상사론』 (서울: 민족사, 1992), 308쪽.

심각한 정치적 위기의 함의로 해석했다. 그러나 전제왕권 강화가 가속화되던 경덕왕 시절, 그에 반대하는 세력의 움직임은 있었으나 그것이 왕의 실권을 가져올 정도로 위협적인 것은 아니었다. 실제로 모반이나 역도들의 폭거가 경덕왕 시절에는 없었다. 때문에 왕으로 상징되는 해와 반왕당파세력을 다른 하나의 해로 의미화하는 것은 비약이다. 왕과 반왕당파를 동일 권력과 영향력을 가진 해로 상징하는 것은 당시의 관습이나 상징 문법에 어긋난다. 왕이자 미륵불인 해와 동일시될 수 있는 것은 반왕당파이거나 왕의 권위에 도전하는 세력¹⁸⁾ 이라기보다는 후에 왕이 될 어린 세자의 상징으로 보는 것이 합당하다. 하늘에 나타나 사라지지 않는 두 해는 각각 경덕왕과 경덕왕의 아들, 후에 혜공왕이 된 어린 세자를 표징한다. 왜냐하면 도술가 조의 이야기는 경덕왕의 왕권강화와 보호를 위한 월명사의 신통한 능력과 재주를 향가로 설명하는 표층과 경덕왕 당대의 왕을 둘러싼 사회 정치적 위기의 타개라는 이면으로 짜여 있기 때문이다. 이야기의 핵심은 물론 천지귀신도 감동시킨 월명사의 향가능력이다. 그러나 아울러 경덕왕이 월명사의 향가를 필요로 했던 사회 정치적 전제조건도 맥락으로 존재한다.

다만 경덕왕을 전면화하지 못한 것은 이미 〈경덕왕충담사표훈대덕〉 조에서 경덕왕과 왕자에 관한 역사가 언급되었기 때문이다.¹⁹⁾ 충

18) 다수의 연구자들은 왕의 세력에 대립하는 반왕당파 내지는 모반을 꾀하는 무리의 등장으로 해석하였다. 그러나 경덕왕 치세 내내 천제지변과 이변은 있었으나 모반의 기록은 없다. 오히려 경덕왕은 부왕인 성덕왕을 이은 성군으로서 민생안정과 왕권강화를 도모하였다.

19) 『삼국유사』 기이 2의 〈경덕왕충담사표훈대덕〉조 설화는 감통의 〈월명사도술가〉조와 유관하다. 경덕왕과 충담사, 월명사, 그리고 향가라는 공통 분모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

담사 이야기가 경덕왕의 왕권강화에 의한 무리한 아들 얻기에 대한 결론이라면 월명사 도술가 이야기는 경덕왕과 왕자의 서론에 해당한다. 경덕왕이 충담사를 만나 〈안민가〉를 짓게 할 정도로 위기 상황을 절감한 것은 경덕왕 24년(765)으로 이 해 왕자는 8세의 나이로 왕위를 계승한다. 앞서 도술가를 통해 이일병현 불양을 위한 산화공덕 의식을 행한 것은 경덕왕 19년(760)이니 충담사의 〈안민가〉보다 5년이나 앞선다. 이 때 왕자는 3세의 어린 아이였다. 이 해(761) 왕은 무리해서 얻은 왕자의 태자 책봉을 서둘렀고 차질 없이 진행되기를 열망했다. 이런 시점에 二日並現의 이변이 발생하였던 것이다. 이에 월명사는 해가 둘 나타난 이변을 왕자의 앞날에 대한 예견으로 포착하고 이를 미륵신앙으로 조화롭게 극복하고자 했던 것이다.

전제왕권 강화의 의지를 가지고 있던 경덕왕은 왕권 강화 정책의 완결이라 할 수 있는 후사문제에 집착했다. 天帝의 뜻에 반하더라도 득남을 강력히 원했다.²⁰⁾ 왕은 태자가 태어나기도 전에 동궁을 수리하였고 3세인 왕자를 태자로 책봉하려고 하였다. 경덕왕은 후사를 잇는 일에 매우 적극적이었기에 하늘의 이치를 거슬러 왕자를 얻었다.²¹⁾ 이러한 열망에도 불구하고 뒤를 이은 혜공왕은 끝내 시해되고

다. 다만 기이편이 역사적 설명에 충실하다면 감통은 월명사의 신통한 감응에 무게 중심이 있다. 두 조목의 설화를 구조적으로 비교한 연구는 김문태의 「〈安民歌〉와 敍事文脈」(『도남학보』, 1991, 123-141쪽)과 최호석의 「경덕왕 설화 연구」(『한국민속학』 30호, 1998, 246-264쪽)에서 자세히 전개되었다.

20) 『삼국유사』 권2, 기이, 「경덕왕충담사표훈대덕」조의 기록에 ‘나라는 비록 위태하더라도 아들을 얻어 뒤를 잇게 한다면 만족하겠다’(國雖殆得男而爲嗣足矣)고 한 대목에서 경덕왕의 득남의지를 엿볼 수 있다.

21) 『삼국유사』 「충담사표훈대덕」조에 자세하다.

태종무열왕계 왕위가 단절되는 상황에 봉착한다. 하늘에 떠 있는 이 일(二日)은 천의를 역행한 왕세자의 탄생으로 인해 예견되는 비극을 상징한 것이다. 천문질서의 혼란은 천제의 뜻을 거스른 왕자의 탄생과 그의 왕세자 책봉과 관련된 산화공덕의 제의를 하고 도술가를 부른 공간에서도 상징적으로 드러난다. 의식을 거행한 곳은 조원전이다. ‘朝元’은 신년 하례를 포함하여 아침 조회를 하는 공간이다. 이는 새로운 출발과 방위상 동쪽을 함의하는데²²⁾ 이는 왕조의 후계자이며 동궁에 거처하는 왕자를 의미한다. 또 하나의 공간인 ‘청양루’는 계절로는 봄이며 방위로는 동쪽을 의미하므로 이 역시 왕자와 상징적으로 밀접하다. 뿐만 아니라 해시에 등장하는 龍樓는 태자의 궁전이다.²³⁾ 제의를 행하는 공간이 모두 동쪽, 봄, 새로운 시작을 상징한다는 점에서 왕세자로 책봉될 왕자와 관련된다. 때문에 두 해 가운데 하나는 왕위를 이을 왕자를 상징한다고 하겠다.

하늘에 떠 있는 두 해는 경덕왕과 왕자 건운(후일 惠恭王)의 상징이다. 천문 질서의 회복을 위한 문제 해결 방법과 앞으로 닥쳐 올 상황에 대한 예시라 하겠다. 즉 하늘의 뜻과 자연의 이치를 거슬러 인위적으로 얻은 왕자로 인해 국가의 안위가 위태로움을 나타낸 것이다. 그러나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문제 해결 방식이다. <경덕왕충담사 표훈대덕>조의 기술은 문제 발생과 충담사의 안민가 그리고 무리하게 얻은 혜공왕의 시해로 귀결되는데 반해 <월명사도술가>는 이일

22) 최선경, 『향가의 제의적 이해』 (서울: 한국학술정보, 2006), 135-153쪽.

23) 『漢書』, “帝爲太子 居桂宮 上嘗急召 太子出龍樓門 不敢絕馳道” (윤영옥, 『신라가요의 연구』, 서울: 형설출판사, 1982, 60-63쪽에서 재인용).

병현과 산화공덕을 통해 불교적으로 해결하고 있다.²⁴⁾ 불교적 산화공덕의 의례로 사라진 해는 동자로 현신해 지상세계로 돌아왔다.²⁵⁾ 천의를 거슬러 얻은 왕자의 세자 책봉은 잘못된 일이었기에 비극적 종말이 필연적으로 예견되었다. 그러나 월명사는 산화공덕의 제의로 왕에게는 미륵과 같은 절대 왕권을 부여했으며 세자에게는 미륵하생의 상징으로서 미륵의 현신을 상징화하였다. 제의를 통해 세속의 문제를 종교적으로 승화, 낙관적으로 해결하였다는 것은 불교 미륵신앙의 돋보이는 해결방식이다.

III. 미륵체상으로서의 <도술가>

월명사는 하늘에 나타난 두 해를 없애는 제양의식에서 도술가를 지었다. 향찰로 기록된 도술가는 비교적 뜻이 간명하다. 뜻을 한문으로 풀어 쓴 해시(解詩)가 나란히 실려 있어 의미를 명확히 하는 데 일조한다.

향가 원문과 해석은 다음과 같다.

24) 김문태는 <안민가>의 서사문맥을 <도술가><처용가>와 대비하여 분석하였다. <안민가>를 정치, 사회문제의 복합적 출현을 유교의 통치이념으로 해결하려 한 노래라 보았고 <도술가>는 주력과 불력으로 일괴의 변을 제압하려 한 것으로 보았다(앞의 논문).

25) 장지훈은 미륵이 항상 童子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은 불교미륵신앙과 관계없는 신라 미륵신앙만의 특징이라 했다. 하늘에서 천신의 아들이나 대리자가 지상에 내려온다는 동북아시아 시베리아 샤머니즘의 특유한 상징은 도술천에서 미륵이 내려온다는 신앙과 동일한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 했다(『한국고대미륵신앙연구』(서울: 집문당, 1997), 226쪽).

今日此矣散花唱良巴寶白乎隱花良

汝隱直等隱心音矣命叱使以

惡只

彌勒座主陪立羅良

오늘 이에 산화의 노래 불러 뿌린 꽃이여

너는 곧은 마음의 명을 받아

오직

미륵좌주 뵈시어라.²⁶⁾

도술가는 불교 가요²⁷⁾ 혹은 주술적 주가²⁸⁾로 파악되었다. 하늘의 변괴를 없애는 주술적인 힘이 있는 노래임에는 틀림없지만 주가(呪歌)로 단정 지을 수 없다. 대상을 환기하고 협박하고 명령하는 주술가의 기본 구조를 따르고 있다 해서 주가인 것만도 아니다. 왜냐하면

26) 도술가의 일반적 분절단위에 변화를 주었다. '너는' (꽃)을 2구의 처음으로 보았고, '오직'을 차사로 해석하여 3구로 독립시켰다. 惡只는 앞의 구절에 붙어 '부리워진'으로 해석되는 것이 일반적이나, 정열모는 이를 독립시켜 차사로 보았다. 향가의 형식적 특징을 고려하고 어석이 문학적 의미를 심화시켜야 한다는 입장에서 정열모의 견해를 수용한 후, 내용 전개에 맞춰 구를 새롭게 분절했다. 향가의 분절에 관한 것은 형식과 관련되어 정밀하게 논의되어야 하므로 후고를 기약한다. 향가가 실린 원문의 분절을 자의적으로 해석, 4.8.10구체로 나누는 분절론은 어떤 방식으로든 재고되어야 한다.

27) 김동욱은 미륵하생신앙으로서 미륵청불의 불교가요로 보았다.

28) 도술가는 하늘의 변괴를 퇴치했다는 점에서 주술적 힘을 가진 노래로 해석되었다. 특히 4구체 향가의 특성이 독특하다는 것과 맞물려 주가로서의 특징은 강화되었다. 4구체 향가 현화가, 서동요, 풍요 등이 각각 기우제의 현장, 군동의 입을 통한 참요, 불사 공덕의 현장에서 불린 노동요로 집단적인 목적을 지닌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도술가 역시 禳災, 招福의 특별한 기능을 하는 주가로 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불교의례가의 대부분도 칭명하고 불보살에게 사뢰는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부처의 가르침이나 예불 공덕은 명령의 화법을 사용하며 도술가를 지어 부른 배경, 노래를 지은 월명, 그리고 노래를 통해 기대하는 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도술가는 불교가 요이다. 산화공덕의 의미를 가진 산화(散花), 미륵좌주와 같은 불교 용어가 구사되고 있으며 끝은 마음, 단지의 표현을 통해 불교 신앙의 자세를 설파하고 있다. 문제 상황을 해결하는 노래라는 기능에 경도되어 주술적인 측면을 강조하여 도술가의 불교적 의미와 기능을 놓쳐버려서는 안 된다.

노래의 내용과 상징 의미를 중심으로 면밀히 살펴보고 불교적 의미 지향을 추출해 보도록 한다. 우선 산화공덕은 꽃을 뿌려 부처님 가시는 길을 영화롭게 축복하는 의식이다. 최고의 아름다움인 꽃을 뿌림으로써 부처를 최대한 대접하는 의식이다. 인간의 절실한 욕망을 수행하는 방식으로서의 산화공양이다.²⁹⁾ 꽃은 인간과 불(佛)을 매개한다.³⁰⁾ 인간의 바람을 천상의 부처에게 전하는 메신저이다. 그로 인해 부처는 인간의 말을 이해하게 된다. 높은 곳에 있는 부처에게 인간은 범접하기 어렵다. 특히 국가적 재난과 관련된 어려운 일일수록 인간의 언어를 적나라하게 드러낼 수 없다. 꽃은 인간 언어의 대체물이자 지극한 아름다움이며 정화된 순정의 언사이다. 개인적 발화가 아

29) 님 가시는 길에 꽃을 뿌려 놓는 정서는 고려가요 가시리를 비롯해 현대 시 진달래꽃에까지 나타난다. 사랑하는 님을 보내고 싶지 않으나 보낸다면 꽃길을 만들어 축복하는 마음으로 보내겠다는 애절한 심상의 표현이다.

30) 최철은 꽃을 해로 보았다. 꽃과 같이 공중에 떠 있는 해를 쳐다보고 그 곧은 마음으로 미륵을 받들게 하는 마음을 담고 있다고 했다(『향가의 문학적 해석』, 서울: 연세대학교 출판부, 1990, 281쪽).

니라 꽃에게 전언을 요구하는 방식은 당면한 문제가 사적(私的)이 아닌 공적(公的)임을 의미한다.

산화창(散花唱)을 불러 미륵불에게 청원한다 하였으니 산화가와 도술가가 서로 다른 노래임을 분명히 했다. 산화창은 산화공덕을 하며 부른 노래이고 도술가는 산화공덕을 행하고 객관적인 상황을 주관적으로 해석하여 부른 노래이다. 두 노래가 같지 않다는 것인데 이는 도술가가 산화공덕의 제의 현장에서 직접 사용된 노래라기보다는 총괄 정리하여 의미를 부여하는 노래라 하겠다. 아울러 산화공덕의 의례에서 노래의 역할이 심대했음을 의미한다. 이어지는 ‘巴寶白乎隱花良’의 해독³¹⁾은 ‘뿌리다, 뽑히다, 솟구치다’ 인데 꽃을 뿌리는 산화공덕의 행위를 설명한다. 산화공덕의 행위를 생생하고 생동감 넘치게 표현하고 있다.

둘째 구의 곧은 마음은 불교적 일심(一心)을 의미하는 동시에 하늘 질서의 혼란함을 해결하기 위한 적극적 공세법을 제시한다. 일그러진 마음과 정치 질서 때문에 초래된 하늘의 혼란은 곧은 마음(直)으로 바로 잡을 수 있다고 보았다. 아울러 사동인가 피동인가에 따라 해석이 조금 달라지는데 한역된 시를 참고하면 ‘곧은 마음의 명에 부림을 당해’라고 피동의 해석하는 것이 적당해 보인다. 주관적 의지가

31) 향가 해독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巴寶	白乎隱	花良
오쿠라신베이	베푸	솟은	꽃이어
양주동	쌈(빵다)	솔본	고자
홍기문	쌈(뽑히어)	스본(나온)	고자
정열모	고보(굽;麗, 곡;曲)	솔본(짓곳은)	히야(花를 읊독, 꽃이 아닌 해)
김완진	솟아나게 한		꽃아

없는 꽃에게 하는 말이기에 피동태로 해석하여도 무리가 없다.

세째 구의 惡只은 ‘오직’으로 읽어야 한다.³²⁾ 앞의 구절에 연결하여 읽지 말고 따로 독립시켜야 한다. 그렇게 해야 미륵을 모시는 신앙 자세와 곧은 태도가 선명하게 부각된다. 향가의 형식적 특징 가운데 하나가 차사(嗟辭)이다. 차사는 감정을 응축하여 긴장과 이완을 연결해 주는 고리 역할을 한다. 따라서 이 부분은 오직이라는 차사로 읽어야 향가의 의미가 완결된다. 미륵좌주를 오롯한 마음으로 모셔야 문제를 극복할 수 있다는 해결 방식의 제시이기도 하다. 종결을 위한 쉬어감이며 완급의 조절이다. 주제를 강조하기 위한 수사적 묘미가 차사이다.

마지막 구에서는 ‘미륵좌주를 모셔라’라는 간명한 명령으로 종결했다. 미륵좌주에서 좌주는 선가의 住持에 대응하는 것으로 도솔천의 주인, 그곳을 주재하는 분을 뜻한다.³³⁾ 때문에 여기서는 도솔천의 주인으로서의 미륵불과 미륵불과 동일시되는 국왕을 함께 의미한다.

꽃을 뿌리며 산화가를 부르는 의례를 통해 바르고 곧은 마음으로 도솔천을 주재하는 미륵보살을 극진히 섬기는 것이 나라의 질서는 바로 잡는 것이라 했다. 천체의 질서는 인문 질서와 다르지 않으니 —

32) 이 부분에 대한 해독은 다음과 같다.

	直等隱	心音矣	命叱	使以惡只
오꾸라신베이	고든	미슴의	命을	바려 (只;무시함)
양주동			命스	브리옴디
홍기문				브리아디
정열모		미으릭	命叱使以-시김스브리(심부름과 같은 의미) 惡只-오직(차사로 봄)	
김완진	곧은			브리아악ㄱ(피동형)

33) 홍기삼, 『향가설화문학』 (서울: 민음사, 1997), 380-381쪽.

心으로 극진하게 모시면 평안할 것이라는 것, 이것이 노래의 깊은 뜻이다.³⁴⁾

도솔가는 오늘(今日) 여기 이제(此)로 시작함으로써 제의의 현장성이 강조된다. 불교의 산화공덕 제의에서 활용되는 현장의 생동감으로부터 출발한다. 산화공덕에 사용되는 꽃을 불러 미륵불과 인간계를 연결하는 매개체로 사용함으로써 산화공덕의 의미를 명징화한다. 마지막으로 곧은 마음을 강조하여 마음으로부터 모든 것을 얻을 수 있고 마음이 시키는 대로 바른 것을 추구하면 얻을 수 있음을 불교적 교의로 정리하였다.

다음은 도솔가를 한역한 해시(解詩)이다.

龍樓此日散花歌

挑送青雲一片花

殷重直心之所使

遠遶兜率大僊家

(용루에서 오늘 산화가 불려, 청운에 한 조각 꽃을 따 보내네,
크고 정중하며 곧은 마음에 부림 받아, 멀리 도솔선가를 맞으라.)

한역시의 용루(龍樓)는 여러 용례로 보아 미륵과 관련된다. 용화향도(龍華香徒)는 미륵신도를 의미하고 용화는 미륵하생 성불 시에 용화보리수(龍華菩提樹)를 가리키는 것³⁵⁾이라는 용례를 미루어 보

34) 유리왕대 도솔가가 불교 이전의 노래로 풍년을 기원하고 나라의 안정을 기구하였다는 점에서 상통한다.

35) 김영태, 앞의 논문, 157쪽.

더라도 용루는 용화보리수의 누각이라고 볼 수 있다. 제의를 실행하는 공간으로서의 용루는 미륵불을 맞이하는 곳이다. 아울러 용은 임금을 상징하므로 미륵불을 맞는 공간의 신성함과 임금의 권위가 중첩된다.

이어 구름에³⁶⁾ 한 조각 꽃을 뿌려 보낸다고 했으니 산화공덕 의례의 은유적 표현이다. 도술가를 부르며 산화공덕의 예를 행하면서 가져야 하는 마음의 모습이 전구에 드러난다. 크고 넉넉한 마음(殷)은 제의를 풍성하게 지내는 외양과 미륵불을 모시는 마음의 크기를 의미한다. 신중하고 진중한 마음(重) 역시 미륵불을 모시는, 신앙심을 돈독하게 하는 기본 자세이다. 곧은 마음(直)은 직지(直指)로서 곧은 뜻과 직감적 깨달음(直觀)을 두루 포섭한다. 미륵불을 향한 곧은 마음은 불성을 가진 모든 중생이 추구해야 하는 바이다. 미륵불을 향한 신심의 양상을 구체화했다. 도술대선은 향가의 미륵좌주에 대응하는 것이다. 대선은 속세를 떠나 선인(仙人)의 뜻으로 부처나 보살에 대한 이칭(異稱)이다. 즉 도술천에 계신 미륵보살을 지칭한다.

해시를 덧붙여 공적 의례의 장엄함을 강조했다. 도술가의 해시는 향가의 의미와 크게 다르지 않다. 시상전개와 내용 모두 동일한 방식으로 조용한다. 다만 한시의 표현이 은유적, 중의적이기 때문에 불교의 관점에서 다의적 해석이 가능하다. 아울러 하늘에 해가 둘 있는 상황 설명은 노래와 시 어디에도 나타나지 않는다. 문제를 감추고 해결만 제시한다. 이렇게 함으로써 부정성을 거두어 내고 긍정성을 부각

36) 청운이라 표현했는데 불교에서 淸은 악행이나 번뇌를 떠나 고결한 것을 상징한다. 청운이라 표현한 것은 미륵이 주재하는 이상향인 도술천을 상징한 것이다.
(불교용어사전, <http://211.46.71.249/webterm>)

시킨다. 불교적 해법의 정수는 크고 진중하며 끈은 마음이며 이는 한 송이 꽃(一片)에 담긴 마음과 같다. 두 개의 해(二日並現)를 하나의 마음(一片)으로 제어할 수 있는, 하나가 둘을 결국 극(克)할 수 있다는 수사의 묘미와 불법의 오롯함을 내포한다.

IV. <도술가>의 정치 이념과 불교적 기능

1. 정치이념과 미륵신앙

<도술가>의 배경이 되는 경덕왕 19년을 전후하여 중요한 정치적 사건들이 집중되어 일어났다. 경덕왕16년(757)에는 지방제도를 정비하고 지방 이름을 한자식으로 개명하였으며 이어지는 18년(759)에는 중앙정부 부서 이름을 한역하는 한화(漢化)정책을 추진하는 등 정치적 혁신과 개조를 단행했다. 이어 동왕19년(760)에는 왕태자 책봉을 통해 후계 구도를 가시화했다. 왕의 과단성 있는 개혁은 중앙 집권화된 권력 강화를 목표로 하는 것이었다. 그는 제도를 정비하고 혁신을 도모했다. 경덕왕의 왕권전제화 노력은 그간 골품제를 기반으로 하여 전개 확립되어 온 신라의 정치적 전통에 비취볼 때 분명히 배치되는 처사였다.³⁷⁾ 다시 말하면 진골 귀족들은 국왕에 대해 뿌리 깊은 대등 의식을 가지고 있었으며 이로 인해 군림하는 국왕보다는 진골 귀족인 그들을 보호해 주는 국왕을 요구하였다. 이로 인해 국왕

37) 이기동, 『신라사회사연구』 (서울: 일조각, 1997), 144쪽.

은 진골귀족과 대등한 위치에서 절대 왕권을 행사할 수 없었다. 반면 야심만만한 경덕왕은 전제주의 왕권을 강화하려 했던 것이다.³⁸⁾

왕권 강화 문제와 더불어 그를 고민스럽게 한 것은 재위 내내 계속 되었던 천재지변이었다. 경덕왕 14년 봄 가뭄, 15년 우박, 17년 천둥 번개와 벼락 등 재위기간 동안 재앙이 끊이지 않았다.³⁹⁾ 기상이변은 국왕의 실정과 직결될 수 있었기에 경덕왕은 후사문제와 더불어 불안한 나날을 보내야 했을 것이다. 때문에 왕은 자신의 입지를 강화하고 소란스런 민심을 수습할 방안을 강구해야만 했다. 경덕왕이 자구책으로 제시한 것이 불력을 빌어 후손을 얻어 왕위를 잇고 자신의 정성과 불력을 이용하여 국왕으로서의 권위를 회복하는 것이었다. 경덕왕은 자신이 당면한 위기를 극복하고 국가의 안녕과 백성의 평온을 위해 월명사의 불력과 신통한 힘을 빌었다. 그는 임금의 위해 산화공덕을 행하였다. 산화공덕을 통해 미륵불을 칭명함으로써 공적 위난을 미륵의 위력으로 타파하려 했다. 특히 미륵불에 기원한 것은 왕이 곧 부처라는 왕즉불 이념으로 왕권을 강화하기 위함이었다. 지상에서 미륵신앙의 당래용화교주신앙은 현세 이익적 특징과 정치적 이념으로 발전하였다.⁴⁰⁾ 왕권이 강화되어야 백성이 편안할 수 있다는 현세이익적인 성격으로 합리화되어 미륵신앙은 정치 이념화하게 되

38) 이기동은 앞의 책에서 경덕왕은 국가적 사업으로 불국사와 석불사를 건립, 불교적 화엄의 세계관을 구현하려 했으며 본인 자신이 毘盧庶那佛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싶었을 지도 모른다고 했다. 경덕왕은 왕권전제화 노력을 했으며 자신을 부처의 반열에 올려놓음으로써 진골귀족들을 장악하고자 했다.

39) 경덕왕대의 정치적 현실에 대해서는 신재홍, 앞의 논문 참고.

40) 채인환, 「신라미륵정토사상의 특성」, 『한국문화와 원불교 사상』 (전북 이리: 원광대학교 출판부, 1987), 592-593쪽.

었는데 경덕왕은 미륵신앙의 대사회적 역할과 기능을 자신의 왕권강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활용했다.

당대에 직면한 불안을 잠재우기 위한 방법은 정당한 논리를 통한 왕권 강화였다. 산화공덕 의식과 도술가는 미륵불과 왕을 동일시함으로써 당시의 사회, 정치적 대립을 극복하는 장치로 사용되었다. 국왕과 도술천에 상주하는 미륵을 동일 공간에 배치함으로써 국왕의 권위를 부처에 견주었다. 그러나 하늘에 두 개의 해가 있을 수는 없으므로 둘 중 하나를 제자리로 돌려야 하는 의식이 행해졌다. 하늘에 있는 미륵불이 지상세계로 하생할 수 있는데 현실적 체상으로 드러난 것이 국왕이라 설명했다. 즉 미륵신앙의 핵심적 특징은 천상과 지상에 각각 정토가 있고 도술천은 사후 왕생하는 정토이며 미륵하생에 의해 염부제는 지상의 정토라고 보는 것이다. 천상에 해 두 개는 각각 미륵으로서의 국왕과 왕의 아들, 왕자를 상징한다. 미륵을 온전하게 모셔냄으로써 지상의 정토인 신라에 하생하게 하는데 이가 바로 후일의 혜공왕이라는 중의성을 내포한다. 미륵불과 동일시된 강력한 왕권으로 정치사회적 혼란을 잠재우려는 의도와 함께 하늘의 뜻을 배역한 무리한 득남요구는 혜공왕의 시해라는 불운으로 귀착됨을 하늘에 떠 오른 두 해와 그 중 하나를 제양하는 것으로 상징화했다. 그러나 경덕왕의 적자를 미륵의 화신인 동자로 전사함으로써 불교의 조화롭고 융합하며 상생하는 세계관으로 포용하였다. 무열왕계 혈통의 단절을 예견, 떨어진 해로 은유하였지만 조화롭게 원용 상생하는 미륵신앙은 혜공의 희생을 원만하게 문학 공간 안에서 불교적 상상력으로 감쌌다.

2. 월명사와 불교적 해결

경덕왕은 미륵신앙만이 중생제도와 난국극복의 힘이 될 수 있다고 믿었다. 월명사는 경덕왕의 뜻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으며 실제적 해결을 제시할 수 있는 인물이었다. 월명은 이미 국선에 속한 무리로 미륵의 화신과 같은 존재였다. 경덕왕은 인연에 의해 우연히 찾아온 월명사에게서 이일병현의 위기를 타개할 수 있는 해결책을 얻고 미래를 긍정적으로 해석하는 현안을 체험한다. 월명사는 <도술가>로 미륵을 통해 세상의 질서를 회복하도록 유도하였다. 월명 그 자신이 미륵의 화신과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미륵과 같은 국왕의 의중을 읽을 수 있었으며 또한 국왕으로부터 무한 신뢰와 감사의 예를 받을 수 있었다. 뿐만 아니라 월명의 신통한 능력을 예리하게 포착한 경덕왕이야말로 국가적 위기를 슬기롭게 해결할 자격을 갖춘 국왕이었다.⁴¹⁾ 월명은 미륵의 공덕에 의해 만인이 살기 좋은 미륵의 용화세계건설을 염원하였다. 월명은 도술천의 주존인 미륵에게 기원하였고 미륵이 하생해서 신라를 미륵의 불국토인 세계로 만들고자 했던 염원을 가지고 있었다.

미륵의 체현은 도술가의 구조와 내용으로 구체화되었다. 산화공덕 제의 현장의 설명, 꽃의 칭명, 가르침과 다짐의 명령으로 연결되는 구조는 상황 해결의 해법과 일치하며 설화의 전개방식과도 맥을 같이 한다. 현장성을 담보함으로써 미륵신앙의 즉각적 영험과 감응

41) 경덕왕은 낚이를 입고 앵통을 지고 남쪽에서 올라오는 충담사의 위엄을 한 눈에 알아보고 백성을 다스려 편안하게 할 노래를 짓도록 하였다(『三國遺事』景德王 忠談師 表調大德). 경덕왕은 국가의 문제를 해결할 능력을 갖춘 승을 가려내는 안목이 있었다.

을 극대화하였다. 노래로 이변을 제어했으니 향가는 천지귀신을 감동시키는 노래였다.⁴²⁾ 향가는 진실된 마음을 곡진하게 담아 불렀기 때문에 인간뿐만 아니라 천지와 귀신을 감동시킬 수 있는 힘이 있었다는 것이다. 향가의 힘은 인간 마음을 순정하게 표현하여 집중하는 일심(一心全力)에 있다. 향가의 감동력의 원천은 마음을 하나로 간절히 응집하는 고도의 정신 수양에서 비롯된 것이지, 노래에 내재된 주술적 힘과 제의의 형식성은 아니다.

하늘의 변괴를 소거하는 양화구복(禳禍求福)의 의식은 불교의 산화공덕이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할 것은 산화공덕을 행함에 향가를 불렀다는 점이다. 일연은 “산화가는 따로 있으나 글이 길고 번다하여 신지 않는다” (別有散花歌文多不載)라고 기록하였다. 일연은 『삼국유사』를 기술함에 있어 치밀한 고증으로 인한 정심한 글쓰기 방식을 고수하였으므로 산화가와 도술가는 분명 다른 노래였을 것이다. 따라서 실제 산화공덕 의식을 하면서 부른 노래는 범패승의 산화가이고 이를 우리말로 부른 것이 월명의 도술가였다. 일연은 번다하다 하

24) 「三國遺事」感通 月明師 兜率歌, “羅人尙鄉歌者尙矣 蓋詩頌之類歟 故往往能感動天地鬼神者非一.” 이는 향가의 효용과 기능을 설명한다. 「월명사 도술가」 조에는 월명이 지은 도술가와 제망매가가 나란히 수록되어 있으며 향가의 효험과 향유, 기능이 부기되었다. 특히 향가가 시경의 頌과 같은 부류라 함으로써 도술가와 제망매가의 성격을 공덕을 칭송하거나 찬미하는 노래의 대표격임을 드러냈다. 천지귀신을 움직여 감동하게 만들기도 했다 했으니 천지를 감동시킨 것을 도술가, 귀신(죽은 누이)에게마저 뜻을 전해 움직일 수 있도록 하는 노래가 <제망매가>임을 총체적으로 설명했다. 향가의 효용과 효험의 기록은 물론 도술가와 제망매가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다만 두 노래의 기능과 성격이 여타 향가보다 천지를 움직이고 귀신에게 뜻을 전달하는 데 으뜸이었음을 예시하였을 뿐이다. 즉 도술가는 하늘을 움직여 땅에 미륵불이 왕립하는 불국토를 이루려는 뜻을 내포한 노래였다. 뿐만 아니라 도술가는 공적영역의 미륵신앙을 제망매가는 사적영역으로서의 미타신앙을 기조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도 서술의 균형감을 찾을 수 있다.

여 기록하지 않았다 하였으니 범패 산화가와 향가 도술가가 서로 달랐을 것이다. 일연은 범패승의 산화가보다 월명사의 도술가가 의식에 적합하다 판단했다. 이는 우리말이라야 변화의 힘을 견인하는 역동성이 있다고 믿었던 언어관을 반영한다. 아울러 일괴(日怪)를 해결하기 위해 노래를 불렀고 노래의 순기능으로 인해 문제를 극적으로 해결했다는 것에 주목해야 한다. 하늘에 떠 있는 두 개의 태양 가운데 하나를 활로 쏘아 떨어뜨리는 문제 해결 방식은 신화적이다. 가뭄과 한발을 극복하는 상징적 행위이다. 또는 태양이 하나일 수밖에 없는 이유를 설명하는 신화적 사고이다. 그러나 경덕왕 시기는 신화시대의 사유가 유지될 수 있는 지점은 이미 아니었다. 고대 국가가 성립, 종교를 사상의 근간으로 하고 있는 신라 중기였다. 때문에 좀 더 합리적인 해결 방식이 제시되어야 했다. 신화적인 대응이 아닌 종교적이고 합리적(종교적 해결이라는 측면에서, 종교 안의 교리를 이해하고 실행한다는 의미에서의 합리성)인 방식으로 대처하게 된다.

즉,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이 종교적이라는 것은 문제의 원인 역시 고대적이라는 것이다.⁴³⁾ 해가 두 개 떠 있는 상황은 이상적인 질서와 거리가 있다. 고대 국가에서 이상적 질서라 함은 국왕을 중심으로 한 왕권, 절대 통치력의 강화와 중앙 집권 체제의 확립이다.⁴⁴⁾ 경덕왕

43) 고대는 원시적 신화시대에 대비되는 것으로 국가가 확립, 왕권을 강화하고 통치를 정당화하기 위해 종교를 이용하는 시기이다. 또한 백성들에게는 업설과 윤회로 현실의 신분 차별을 지지하는 동시에 불성론을 통해 인간의 본질적 평등성을 일깨우기도 한다.

44) 왕권중심의 고대국가로 발전하는 과정에서 신라는 재래의 무격 신앙, 조상숭배 신앙과의 갈등을 극복하고 왕권강화를 위한 하나의 초부족적인 정신적 토대로 불교를 수용하였다(판카즈 모한, 「6세기 신라에서의 왕권과 불교 간의 관계」, 『불교학연구』 9호, 서울: 불교학연구회, 2004, 141쪽).

대의 정치 현실은 왕권 강화가 어느 때보다 절실히 요구되었⁴⁵⁾ 이를 위해 불교의 강력한 사상적 기반이 필요했다. 신라 불교는 고구려를 통해 전래되었기 때문에 왕즉불(王則佛)의 북방 불교 색채가 강해 왕실의 주도권 아래 발전하였고 이후 신라 중고기를 통해 국왕의 권위는 불교로 수식되었다.⁴⁶⁾ 불교는 지배체제와 고대 국가의 율령강화 역할을 담당하였다. 그러나 불교가 민간 신앙으로 점차 저변을 확대되면서 강력한 왕권 옹호를 위한 불교의 뒷받침이 다소 느슨해졌을 것이다. 강력한 왕권에 대한 복귀를 희망하고 있는 시점에서 정치적 기반 강화를 위한 불교의 활용은 당연했다. 국왕 자신 스스로를 미륵불로 동일시함으로써 전제 왕권을 다시 확립하고 강력한 통치력을 발휘하고자 했던 것이다.⁴⁷⁾

천문질서 회복을 위한 기원은 불교적 대응으로 표출된다. 인연 있는 승 월명과 그의 노래이다. 월명은 우연히 그 자리를 지나가는 연(緣)으로 인해 하늘의 변괴를 제어하는 능력을 발휘하게 되었다. 인연이라고 함은 우연을 가장한 필연을 설파하는 서사장치일 뿐이다. 어려운 상황에서 국왕과 신하들이 기다리고 있는 지점을 지나가게 된 것은 불교에서 말하는 연(因緣)이다. 반드시 그럴 만한 연유가 있어 그 시각, 그 지점에 당도하게 된 것이다. 인연 없는 결과는 없고 모든 일에는 그에 합당한 원인과 결과가 있다는 인과응보에 다름 아니다. 월명

45) 경덕왕 당대의 정치현실은 신재홍, 앞의 논문에서 상세하게 설명되었다.

46) 판카즈 모한, 앞의 논문, 141쪽.

47) 경덕왕대 전제 왕권의 강화는 미륵신앙 관계 승려들과 밀접히 연관되어 있다. 김남윤의 논문을 참고할 만하다(『新羅 彌勒信仰의 전개와 성격』, 『역사연구』 2, 서울: 역사학연구소, 1993).

은 해가 두 개 나타난 변고를 제어할 수 있는 유일한 해결자이다. 그런데 그는 국선의 무리이므로 향가만 알고 범패는 모른다고 했다. 산화공덕의 예에 걸맞는 범패 의식요를 지어 부를 수 없다고 했다. 하늘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우리말 향가가 연(緣)이 있는 노래라 보았다. 국선(國仙)은 나라의 신선이 아니라 나라의 미륵님이라는 뜻으로 국왕이 뽑은 화랑의 최고 책임자이다.⁴⁸⁾ 국선은 화랑의 별칭이며 국선의 선(仙)은 미륵을 상징하며 신라시대 국선도의 사상적 배경에는 미륵신앙이 국가적 통치 지배 원리의 핵심적 기능을 담당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⁴⁹⁾ 즉, 도솔천에 있는 미륵보살을 신라의 세간에 있는 국선으로 삼음으로써 사회 발전에 합당한 사상적 배경을 이루어 국가 발전에 기여하게 하였다.⁵⁰⁾ 따라서 월명이 국선의 무리에 속한다 한 것은 미륵신앙의 힘으로 나라의 문제를 해결하여 왕권 강화를 명징화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국왕 역시 향가를 지어 불려도 무방하다 허락함으로써 월명의 언술적 권위, 즉 우리말 향가로 문제 국면을 타파하고 새로운 질서 회복을 가능하게 할 수 있음에 신뢰감을 실어 주었다. 이는 우리 말 노래라야 진정한 기원을 표현할 수 있다고 믿었던 당대의 시가관과 일치한다.⁵¹⁾ 또한 경덕왕은 왕권 강화를 위해 문물제도를 정비한 것과 마찬가지로 호국 사상

48) 김영태, 『신라의 미륵신앙 전개』 (서울: 불광출판부), 155쪽.

49) 홍기삼, 『향가설화문학』 (서울: 민음사, 1997), 380-381쪽.

50) 홍윤식은 신라는 미타정토신앙보다 미륵 사상을 더 일찍 수용 국가 불교 형태로 보급하였는데 이는 전륜성왕 사상에 의한 불교적 이상 국가 건설을 추구한 것이라 설명하였다 (『삼국의 불교수용과 사회발전의 제문제』, 『마한, 백제 문화』 8, 1985).

51) 향가라는 명칭(우리의 노래)과 향가를 기록한 향찰 표기 방식은 자주적인 의식을 드러낸다. 중국의 한시와 한문을 빌어 표현하는 것보다는 우리의 노래를 우리의 방식대로 기록하는 것에서 노래의 힘이 발현된다고 믿었다.

을 지니고 왕실과 긴밀한 유대 관계를 맺어왔던 기존의 불교 숭앙 계층이자 화랑도인 월명사의 시작 능력과 영험함을 빌어 왕권 강화를 도모하였다. 즉 미륵보살의 현세적 화현인 국선이라면 혼란함 해소하고 조화로움을 회복할 수 있다고 믿었던 것이다.

V. 결론

향가 <도솔가>는 미륵신앙으로 정치, 사회의 문제를 해결하는 노래이다. 경덕왕 당시의 왕권강화 정책과 왕세자 책봉의 문제에 대한 해법을 미륵신앙에서 찾은 노래이다. 하늘에 나타난 두 해는 도솔천을 주재하는 미륵불로 상징화된 국왕과 천제의 뜻을 거슬러 얻은 왕세자를 의미한다. 국왕을 미륵불과 동일한 위상으로 파악함으로써 왕즉불의 사상적 신념을 강화한다. 강력한 왕권강화를 유지시켜주며 내부세력의 통합과 질서의 회복을 정당화하는 사상적 기반을 제시하였다. 미륵신앙은 도솔천에 있는 미륵과 지상에 하생한 왕이 다르지 않다고 보았다. 또 다른 하나의 해는 왕의 뒤를 이을 왕자의 상징이다. 천의를 거슬러 무리하게 얻은 왕자이므로 후일 모반과 반란의 시련을 겪게 되고 사라지는 운명이 됨을 예정한다. 즉 해가 둘 나타난 이상 현상은 왕과 왕자를 상징하며 하나의 해가 제거되어야 하는 상황을 통해 전제왕권을 강화하여 민심을 수습하고 생활의 안정을 확보하는 동시에 무리해서 얻은 왕자는 비극의 단초가 됨을 암시하였다. 후일 왕이 되는 왕자의 운명이 순탄하지 않을 것을 예견하고 미륵신앙으로 원만 원용한 해결을 제시했다. 문제 해결 방식이 불교적 포

용과 용화라는 점은 매우 주목할 만하다. 미륵상생신앙으로 왕의 권위를 보력하며 미륵하생신앙으로 이 땅이 불국토임을 역설했다. 미륵신앙과 밀접한 국선 월명을 불러 노래를 짓게 하였는데 월명은 미륵신앙이 국가 통치의 이념화를 위해 활용되는 방식을 아는 인물이다. 월명의 〈도술가〉는 불교적 해결법을 제시하는 동시에 왕권 강화, 중앙집권화된 힘의 응집을 해법으로 시사한다. 곧은 마음으로 미륵불을 잘 모신다면 변괴가 없어질 것이라는 했는데 이는 곧은 마음으로 왕을 보필, 힘을 왕에게 모아 줄 때 비로소 나라의 안정이 확보된다는 의미와 다르지 않다. 결국 미륵신앙은 미래불에 대한 개인적 종교적 요구에서 성행하였다기보다는 국가 사회의 현실 관리와 통치 이념의 종교적 장치로서 강하게 유포된 것이다.

왕의 강력한 통치를 정당화해 주는 서사 장치는 향가 도술가에서도 체현된다. 도술가는 매우 소략하나 강력한 전언을 함축하고 있다. 오로지 한 마음으로 미륵좌주를 모셔라고 명령한다. 꽃에게 전가하여 미륵에게 아뢰는 언술의 형태를 갖추고 있지만, 실상의 전언은 인간을 향한 직접 발화이다. 곧은 마음, 한가지 오롯한 마음으로 미륵을 모셔야 한다고 했다. 향가 도술가의 곧은 마음은 한역된 해시에서 殷, 重, 直으로 구체화된다. 미륵을 모시는 신앙태도를 집약적으로 응축했다. 미륵이 곧 국왕이므로 왕권이 강하게 유지되어야 나라의 질서가 잡히니 백성들은 미륵을 모시는 마음으로 은근하고 진중하고 올곧은 마음으로 흔들림없이 국왕을 지지하고 의지해야 함을 중의적으로 짜 넣었다.

도술가 배경설화와 향가는 매우 정밀하게 조직되어 있다. 미륵신앙을 사상적 기반으로 하여 문제를 해결해 나가며 좀 더 근원적인 해

법을 제시한다. 그리하여 정치적으로는 왕권을 강화하여 당대의 정치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염원을 담고 있다.

주제어

이일병현 (two suns in the sky), 경덕왕 (King Kyeongdeok), 도솔가 (Dosolga), 월명사 (Wolmyeong), 혜공왕 (King Hyeogong), 왕권강화 (reinforcement of kingship), 미륵신앙 (worship of Maitreya)

Reading “Tosolga” in Terms of Maitreya Buddhism

Choi, Jungsun
Yonsei University

Hyangga “Tosolga” and its related stories should be read in terms of Maitreya Buddhism to grasp its accurate meanings and functions. “Tosolga” was sung by Ven. Wolmyeong to eliminate the “two suns” in the sky which symbolize celestial disorder. “Two suns” have been explained as indicating conflicts between King and anti-King groups. However, it should be carefully re-examined in terms of political situation of King Kyeongdeok’s period, which was extremely unstable because of natural disasters and powers against the king. “Two suns in the sky” must be interpreted as referring to the king and his son. King Kyeongdeok was regarded as Maitreya Buddha, reinforcing kingship on the base of the idea that the king

is equal to Maitreya. His son, who was begot by divine will, was represented as an another sun. His son, later became the King Hyekong, was also regarded as a divine little boy, a descendant of Maitreya.

Meaningful and thoughtful solutions were suggested by Ven. Weolmyeong in his “Tosolga”. He had been a member of *Kukseon*, which was regarded as the society of the elites who embodied Maitreya. In the song, he prayed for consolidation of the king and the prince. The poetic words are straight, gentle and dignified, implying the right attitude toward Maitreya as a king. He also had noticed that the power of Hyangga came from native Korean language. In addition to all of these qualities, he managed to know the method of solving political problems in those days.

“Tosolga” and its circumstances were interweaved in a very delicate way. A rudimentary solution was exposed upon basis of Maitreya religion. As a result, the song carried the hope for fortification of kingly power and an optimistic way of resolving confliction.